

# SSG 랜더스 vs LG 트윈스, 1위 자리 놓고 진검승부 펼친다

4연패 중인 NC, 두산·KT와 6연전 상대  
4위 수성 비상 롯데, 두산과 주말 3연전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1위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SSG는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LG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주(20일~25일) 5승 1패의 성적을 올린 SSG는 시즌 43승 1무 25패를 기록해 LG(43승 2무 26패)에 0.5경기 차로 앞선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팀은 1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SSG와 LG는 3위 NC 다이노스(35승 1무 30패)와 승차를 멀찌감치 벌려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SSG는 LG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 SSG는 지난주 팀 타율 0.333에 11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SSG 간판타자 최정은 지난주 무려 5개의 홈런을 쏘아올렸고, 두 차례 결승타를 기록했다.

최정은 올해 19홈런을 터뜨려 통산 네 번째 홈런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성환은 지난주 무려 0.478의 타율을 기록했고, 최준우와 기예르모 에레디아 역시 4할이 훌쩍 넘는 타율로 SSG 타선을 이끌고 있다. 에레디아는 올해 0.342의 고타율로 타격왕에 도전한다. SSG 못지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LG는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LG는 이번 시즌 SSG와의 상대전적에서 4승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LG는 이달 초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잠시 2위로 내려앉았다. 이달 중순 다시 선두를 탈환했지만, 다시 SSG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LG는 SSG와의 3연전에서 토종 에이스로 성장한 임찬규와 케이시 켈리를 앞세워 위닝시리즈에 도전한다. LG 김현수와 홍창기, 문성주의 최근 타격감



이 좋다. 특히 홍창기는 올해 SSG전 6경기에서 5할 타율(26타수 13안타)을 기록하며 천적의 모습을 보였다. 최근 4연패를 당한 3위 NC는 5위 두산 베어스(32승 1무 34패), 중위권 진입을 노리는 7위 KT 위즈(30승 2무 35패)와 상대한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NC는 연패를 끊기 위해 사활을 건다. NC는 10승 투수 에릭 페디를 필두로 투수진을 재검비한다.

4위 롯데 자이언츠(33승 33패)와 5위 두산은 30일부터 울산 문수구장에서 3연전을 치른다. 최근 마운드가 붕괴된 롯데는 지난주 1승 5패의 부진을 겪으면서 4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두산 타선은 바닥을 쳤지만, 지난 2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무려 20안타를 때려내며 타격감 회복 조짐을 보였다.

롯데와 두산의 승차는 1경기에 불과하다. 삼성 라이온즈(27승 41패)는 최하위 탈출을 위해 6연전에 나선다. 투타에서 모두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삼성은 최근 12경기에서 2승 10패로 부진을 겪었다. 삼성은 27일부터 롯데와 3연전을 치른 후 최근 4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9위 한화 이글스(27승 4무 37패)와 일전을 치른다.

뉴스



## 신유빈, 일본 15세 유망주에 패해 2주 연속 우승 좌절

세계 25위 하리모토 미와에 2-4 패배

탁구 여자 단식 세계 16위 신유빈(19)이 일본 15세 유망주에게 2주 연속 국제 대회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다. 신유빈은 지난 25일(한국시간)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튀니스 2023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5위 하리모토 미와(일본)에 2-4(8-11 5-11 9-11 7-11 7-8-11)로 졌다.

하리모토 미와는 탁구 천재로 유명한 하리모토 토모카즈의 친동생이다. 하리모토 미와는 일본 기대주로 신유빈보다 어린 15세다. 신유빈은 1게임과 2게임, 3게임을 잇달아 내주며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4게임과 5게임을 따내며 역전 기대를 품게 했다. 신유빈은 6게임에서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며 연속 실점하며 패했다. 신유빈은 임종훈과 조를 이룬 혼합복식에서는 준우승, 전지희와 함께 된 여자 복식에서는 3위에 올랐다.



## 광주 문화중, 호남·대전·제주권역 농구 우승

광주 문화중학교가 '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문화중 농구부가 광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중고농구연맹 권역별 대회 호남·대전·제주권역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중은 예선 첫 경기에서 전북 군산중을 만나 115대 83으로 이겼다. 이어 제주동중을 123-53, 대전중과 여전중을 각각 98대 71, 88대 60으로 누르고 4연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이어나간 문화중은 전주남중과 마지막 경기에서 101대 96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우승을 차지해 권역별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또 리그 5승 전승을 거둔 문화중은 오는 8월에 열리는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됐다. 문화중은 센터 김건우(3학년)와 주장 정유민(3학년), 김경륜(3학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번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중 김서령 교장은 "3학년 주축 선수들이 부상 투혼을 발휘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왕중왕전에도 학교와 권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뉴스

## 팬과 선수 다 잡은 이정후...생애 첫 올스타 최다득표

이정후, 선수단 투표서 276표(득표율 77.7%) 얻어...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득표율

팬과 선수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생애 첫 KBO 올스타 최다 득표 영광을 안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2023 신한은행 KBO 올스타전 베스트12를 발표했다.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진행됐다. 10개 구단 감독, 코치, 선수가 참여한 선수단 투표는 13-15일 경기가 열린 5개 구장에서 실시됐다. 지난 1, 2차 팬 투표 중간집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나눔 올스타 외야수 이정후는 마지막 주에 선두를 유지했다. 239만2236표 중 124만2579표(51.9%)의 높은 득표율로 팬 투표 1위를 차지했고, 선수단 투표에서도 355표 중 276표(77.7%)로 1위에 올라 팬과 선수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두산 베어스 양의지에 이어 역대 2번째다. 또한 이정후의 선수단 득표 276표(득표율 77.7%)는 2016년 NC 다이노스 나성범, 2022년 삼성 라이온즈 호세 피렐라의 236표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 및 득표율이다. 데뷔 후 첫 최다득표 1위를 차지한 이정후는 5시즌 연속이자 통산 6번째 베스트 12

에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베스트12에 선정된 롯데 자이언츠 고졸 신인 김민석은 팬 투표에서 92만5811표로 삼성 구자욱(97만0157표)에 이어 외야수 부문 2위, 선수단 투표 합산 결과 최종 3위를 차지했다. 고졸 신인으로는 역대 4번째 베스트12 (종전 2009년 KIA 타이거즈 안치홍, 2017년 키움 이정후, 2019년 LG 트윈스 정우영) 영예를 누리게 됐다. 드림·나눔 올스타 베스트12는 롯데와 KIA가 총 7개 부문, KIA가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롯데는 2차 집계까지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1루수 부문에서 KT 위즈 박병호가 선수단 투표로 뒤집어 최종적으로 7명의 베스트 12를 배출했다. LG 고우석도 높은 선수단 투표 득표율로 KIA 정해영을 제치고 가장 치열했던 나눔 올스타의 마무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우석은 선수단 투표, 정해영은 팬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총점 0.38점 차이로 고우석이 아슬아슬하게 베스트12 마무리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 박세웅, 노진혁, 김민석, KIA 최지민, 키움 김해성, NC 김주원은 KBO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이번 올스타 베스트12는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구단의 선수가 1명 이상 선정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단 별로는 드림 올스타에서 롯데 7명, 삼성 2명, SSG 랜더스, KT, 두산은 각각 1명씩 선정됐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4명, 키움, LG, NC, 한화 이글스에서 2명씩 선정됐다.

## 시즌 최고 2m33 넘은 이상혁 "2m37에 계속 도전"

이상혁, 정선 육상선수권에서 2m33 넘어 개인 시즌 최고 기록으로 우승



한국 높이뛰기 간판 이상혁(용인시청)이 2023 전국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시즌 최고 기록을 남겼다. 이상혁은 25일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3을 넘어 우승했다. 2위는 2m10을 기록한 윤승현(울산광역시청)이 차지했다. 1차 시도에서 2m20을 넘고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보한 이상혁은 이후 기록 도전을 이어갔다.

2차 시점에서 2m25를 날아올랐고, 3차 시점에서 2m30을 뛰어 넘었다. 그리곤 자신의 시즌 최고 기록인 2m32보다 1cm 높은 2m33에 도전했다. 이상혁은 첫 번째 시도만에 2m33을 날아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했다. 동시에 주부 해리스(미국), 조엔 바넬(호주)과 함께 2023년 남자 높이뛰기 기록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이달 초 각 대회 기록, 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월드컵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한 이상혁은 기록 순위도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상혁은 내년김에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2m36) 보다 높은 2m37도 도전했지만, 3차례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상혁은 다음달 초 유럽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할 예정이다. 경기 후 이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는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 전조전으로 생각한다. 세계육상선수권까지 4-5차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대회에서도 오늘처럼 2m37 높이에 계속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아헨 김 페퍼저축은행 감독, 데뷔도 전에 개인 사정 사퇴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아헨 김(38) 감독이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팀을 떠났다. 페퍼저축은행은 25일 "아헨 김 감독이 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구단은 심사 숙고 끝에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23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아헨 김 감독은 믿고 응원해 주신 팬들과 구단 및 선수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다. 구단도 아헨 김 감독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아헨 김 감독은 전날(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이별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월 아헨 김 선임 감독 선임임을 발표했다.

뉴스